



극단 하늘개인날 제5회 정기공연

동의보감



박기찬 ● 극단 하늘개인날 고문

사람사는 세상의 위대한 율법

세월이 흐르면서 자망(自望)의 무상 속에 생명의 질곡은 깊어지는가. 그래서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고 했던가. 그래서 무시무종(無始無終)이라고 했던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사바의 윤회. 그래서 그런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나라 풀이 되고 말았다.

‘인내천(人乃天)’ 사람이 하늘이라는. 우리는 이 말을 믿는다. ‘하늘개인날’이 만들어내는 모든 작업들은 관객과 함께 하며, 함께 울고 웃어야 한다는 것을.

‘하늘개인날’은 그들과 함께 사람사는 세상의 올바른 율법에 복무하는 주체적인 작업이 되기를 원할 뿐이다.

우리의 미약한 작업들이 이 위대한 율법의 복무에 일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부단히 쉽없이 노력하는 사람사는 세상의 ‘하늘개인날’이 되어 참 사람사는 세상이게 하고 싶다. 마치 허준의 그 집념처럼 말이다.

인간성 회복을 위한 재현



권 철 ● 극단 하늘개인날 대표

세기적 진서로 동양 각국을 통해 의서로서 최고봉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동의보감을 저술한 집념의 사람, 허준!

이 시대 아니 차후 세대에도 감히 그 사람의 그림자라도 쳐다볼 수 있는 분이 탄생된다고 하면 기대가 너무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이다. 지금 허공에서 불타오르는 그 모습, 그 눈동자가 변절되어 가는 그 누구들을 향해 어떻게 보여질지 …….

그래서 연극 동의보감은 의로운 의술은 무엇인가와 메마른 사제지간의 인간성 회복을 주제로 그 시대, 그 모습을 재현해 보고자 하는 무대이다.

그동안 드라마와 소설 동의보감을 통하여 익히 잘 알겠지만 연극무대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 극단 하늘개인날이 무대에 올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기고 싶다.

그리고 저희 극단 하늘개인날은 차기공연 준비에 또다른 정열을 토해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올 연말을 화려하게 꾸며낼 뮤지컬 '92 춘향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뮤지컬 원효대사에 이어서 또 다시 극단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이기 위해 좀더 치밀한 기획과 뮤지컬의 화려함과 재미를 부각시켜 부산 연극계에 발전적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많은 제작비를 들여 만든 작품을 1회 공연으로 끝내지 않고 정기공연 또는 지방 순회공연을 가져 부산에서 만든 뮤지컬을 타지방에도 선보일 수 있는 작업들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아낌 없는 조언과 질타를 주시면 보다 더 완성된 작품으로 연극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보답코져 저희 극단 하늘개인날 식구들은 항상 뜨거운 가슴으로 화전을 일구겠습니다.

그리고 연극 동의보감에 많은 애정어린 관심을 보여주신 분들과 공연을 준비하느라 정성의 땀을 흘려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백경미 ● 늘푸른기획실장

자신의 모양새를 위하여

온갖 공해에 찌들려 탁하기만 하다는 지구의 하늘이 오늘 따라 높고 맑게만 느껴진다.
마음을 아주 사심없이 깨끗이 비웠기 때문인가.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다시 흠으로 되돌아가기까지의 그 무수한 시간들에 있어서 하고 싶은 일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온갖 즐거움들을 누리고 싶어서 한평생 그것을 추구하며 또 이루고자 한다.

물론 그것이 삶의 본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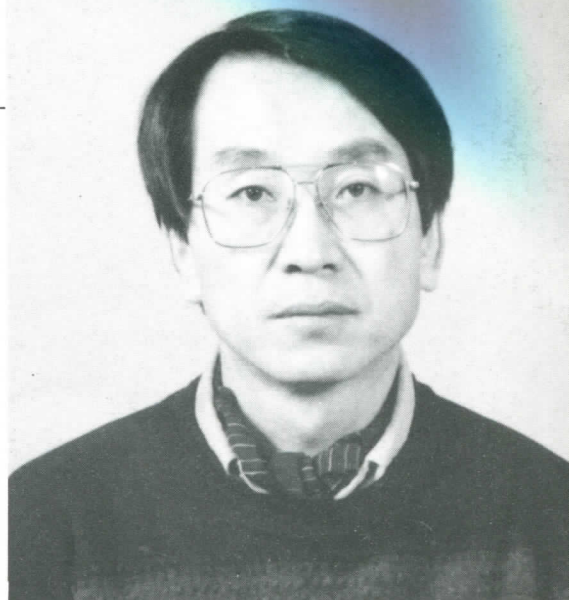
제각기 나름대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설정만을 달리할 뿐 근본적인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마찬가지로 가지이다. 누가 더 바르게 자신에게 맞는 모양새를 갖추어 가는가가 문제인 것이다.

천여년전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그것도 시대적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도 아주 적절하게 또 성실하고 초지일관적인 삶을 살아온 이가 있다.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극복하고 마침내 우리나라의 한 의학에 있어서도 빼놓을 수 없는 크나큰 획을 그어서 후세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모든 후손들에게 존경과 덕망을 받아 칭송되어지면서 많은 교훈을 남겨준 이가 “동의보감”의 허준이다.

역시 간난신고를 이겨낸 이들만이 진정 가치있는 삶을 살았다고 할 것이다.

국내 초연작인 이번 “동의보감”은 우리에게 또 한번 많은 가르침과 감동을 줄 것이다.

끝으로 작업에 참여하여 주신 하늘개인날의 식구들과 수고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두에게 희망찬 내일만이 있기를.



허 은 ● 경성대학교수·연극학

능동적 작업에 대한 기대

허준의 동의보감은 과거의 책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 의미는 결코 사라지지않고 새롭게 탄생 된다. 그것은 의학서적으로서의 가치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불후의 명작으로서 존재한다. 그것은 인간의 육체적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살찌게 한다. 그것은 바로 허준의 정신세계가 모든 기록된 사실 들과 함께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인간존중의 휴머니티가 모든 노작속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우린 <전공서적>이라는 벽을 깨고 동의보감을 바라볼 수 있다.

소설 동의보감이 무대에 오른다.

하늘개인날이란 극단의 이름과 참으로 걸맞는 작품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기대 또한 자꾸 커진다. 오늘날의 연극이 관념적유희나 도피적 향락을 추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현학적 자기도취에 빠져가는 듯한 조짐이 있는 이즈음에 있어 진실하고 치열하게 살아간 한 인간을 오늘날에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는 커다란 기대이다. 그것도 먼나라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의 인물을 통해서라니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

내가 서있는 이자리에서 모든 것을 느끼고 볼 수도 있는 해안만 있다면 우린 먼길을 갈 필요가 있겠는가.

허준의 스승이 그의 몸을 기꺼이 해부의 대상으로 내놓았고 또 스승의 시신을 눈물로 해부했던 그 뜻은 결코 알팍한 의학실습이나 요즘 신문에 떠들어 대는 징코민 사건과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허준의 집념과 같은 것이었으면 좋겠다. 또 그의 스승이 스스로 바친 몸과 같은 것이었으면 좋겠다.

진정으로 좋은 연극은 결국 허준의 처방과도 같을 수도 있다.

언젠가 소설 <하늘개인날>이 만들어져서 연극의 동의보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꿈은 아닐 것이다.

마치 허준의 생애가 그러했던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능동적일 수 있다면 연극은 그 성격에서 늘 지칭되는 것처럼 1회적인 예술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적되어 남아있는 삶의 일부가 되리라 믿는다.

하늘 개인날의 계속되는 작업에 항상 관심을 가지면서.



이정희 ● 시인

天眞의 못 성령들을 위하여

16세기 말, 조선왕조 중엽의 두터운 신분차별 속에서 천첩의 자식이라는 미천한 출신으로부터 정일품(正一品)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에 양평군(楊平君)이라는 작호까지 받았던 인물. 무덤 속으로부터 생명을 끌어내고 이 나라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까지 사랑했던 사나이 허준.

중국의학에의 의존을 타파한 민족의학의 보고 '동의보감'을 탄생시킨 의성 허준.

병들어 고통받는 민초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헌신.

천첩의 자식이라는 신분의 질곡과 온갖 간난신고를 극복해나가는 동앗줄과도 같은 허준의 집념/그 허준의 뒤에는 제자를 위해 자신의 몸을 해부용으로 내놓기까지 한 살신성인의 스승 유의태, 천수관음의 화신 같은 인의 김민세 삼적대사가 있었다.

이미 소설 '동의보감'은 TV드라마와 베스트셀러의 최고 지위를 지켜 독자들의 가슴에 문신처럼 박혀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강하다는 것은 부드러움을 전제로 한 역질의 반대급부적인 하향 곡선을 남겨 놓지만, 그러나 끈끈하다는 것은 상향 중선을 만들어 가는 평행의 원칙을 말함이라.

허준과 유의태의 관계가 그러하리라.

나는 한때 대저 글이란 '코딱지 같은 것' 이라고 치부한 적이 있었다.

우리가 숨을 쉬고 뺄 때, 대기 속의 먼지와 허파 속의 열기가 맞닥뜨려서 딱지를 엉겨붙게 하듯이, 글이란 대체로 우주에 미나해 있는 '정신의 바다'에 떠다니던 몇 톨의 티끌이 호흡을 통해 내 뇌수의 한 자락에 끼이게 된 것을 종이폭에 여기지게 긁어놓은 것쯤으로 생각했다.

말은, 숨결과 함께 들이마실 수도 흘러내버릴 수도 있는 콧물처럼 유기체의 몸체에서 떨어져 나오기 전, 생명현상의 자연스런 한가닥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지만, 글이란 아무래도 딱지처럼 이미 토막치고 잘려버린 '정신의 때요, 비듬 같은 것'이라는 사념에 사로잡혀 괜히 혼자 역해 있곤 했던 것이다.

그 때, 비듬 딱지를 누룽지 굽듯이 굽어모아 그럴듯이 장정하고 검인 찍어 '내 글' '내 말씀' 입네 산지사방 외고 다니면서 사기치고 장사하는……. 그래서 그 훔날리는 비듬가루 때문에 온 세상 천진(天眞)의 못 성령들이 얼마나 얼이 뿔히고 주머니를 털렸을까.

나 혼자 모골이 송연할 지경이다.

한 편의 연극 속에서 이제 또 그 비듬을 긁어 모우기 위해 소설 '동의보감'을 각색했다.

끈끈하고 냉철한 사제지간인 유의태와 허준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손기룡 ● 극단 예사당 대표

새 작품을 대할 때마다 희곡속에 새 인물들과의 만남은 숙명적인 전생의 업보속에 맺어진 인연인가를 생각해 본다.

그 만남과 헤어짐의 아쉬움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연극을 떨치지 못하는 미련속에 오늘도 막이 오른다.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은 많은 역사를 낳듯이 더 넓은 우주속에 보잘것 없는 인간이 참된 만남의 충돌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에네르기(氣)는 상상을 초월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세계의 역사는 한 개인이 이루듯이 만남의 함수관계는 상대성 논리를 낳게 되고 그 힘 또한 인생을 뒤바꾸듯이 역사를 바꾼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만남의 연속에서 시작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이 창조되어 진다.

유의태와 허준의 만남속에 과거지사 병든 모든 이를 위한 한의학의 새장을 열고 현대 의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동의보감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듯이 인간의 만남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힘이 아닐 수 없다.

이 작품에서 특별한 그 무엇을 주기보다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하는 것의 깨우침속에 인간존재의 가치성이 부여됨에 있어 삶의 근원적인 바탕이 되고 현대 문명속에 묻혀버린 인간 본연의 humanity를 이런 의인(義人)들의 만남속에서 작은 인간애를 느낄수 있다면 이런 연극적 만남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비인부전(非人不傳)이란 말을 되새기며 막을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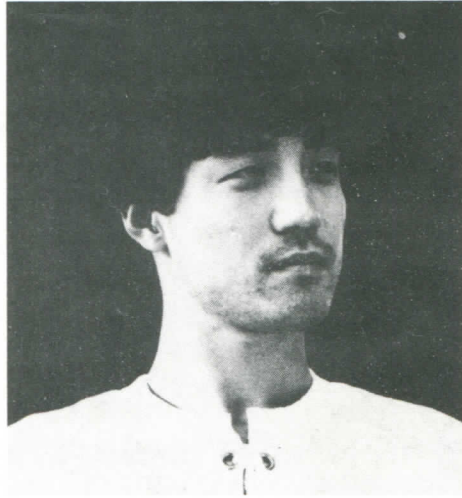
■
유의태
이정허



■
허준
권철



■
다희
박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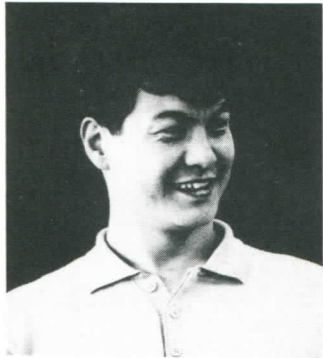
■
성대감
배성우



■
성대감부인
박현숙



■
성대감 딸
김정미



■ 안광익
박상규



■ 영달
전민수



■ 삼적대사
김종훈



■ 손씨
김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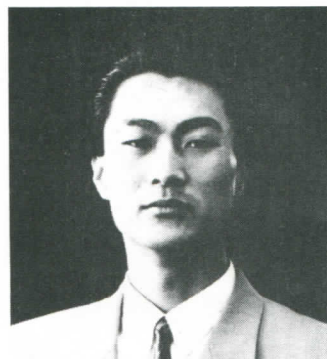
■ 상화
배진숙



■ 오씨
홍숙자



■ 선비
장하근



■ 꺾쇠
손민



■ 도지
정주현



하늘개인날을 빛낸 사람들/스텝



■ 기획
신용우



■ 무대감독
권오진



■ 음악
박철홍



■ 무대미술
손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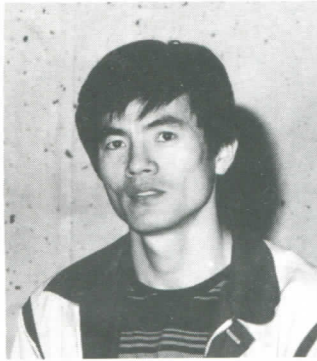
■ 분장
이지원



■ 의상
조영선



■ 사진촬영
김옥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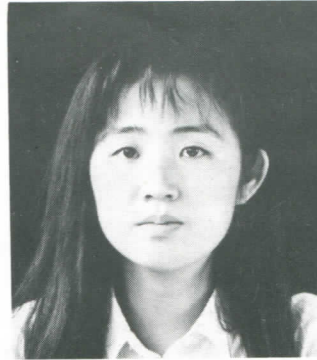
■ 장치
김인덕



■ 조명
박지희



■ 음향
이승현



■ 소품
최가람



■ 소품
배갑례